범어사 청년회 '금어' 창립…"청년포교 앞장"

1월 18일 보제루서 발족식
6년 간 단절된 청년회 복원
호국문화 프로그램 등 운영
20~45세 청년 46명 참여해



범어사는 1월 18일 경내 보제루에서 '21세기 범어사 청년회 발대식'을 봉행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금정총림 범어사가 청년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발족식을 봉행했다. 범어사 청년회 '금어'는 수행 공동체로 서로를 위한 도반이 될 것을 서원했다.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1월 18일 경내 보제루에서 '21세기 범어사 청년회 발대식'을 봉행했다.

발대식에는 범어사 총무국장 대방 스님, 교무국장 석산 스님, 포교국장 해공 스님, 사회국장 법진 스님과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박경희 중앙부회장, 김진희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 회장 등 주요 내빈과 서영란 범어사 청년회 금어 회장과 회원이 동참했다. 발대식은 개식, 삼귀의, 반야심경, 청년회 발대선언 및 서약서, 격려사, 인사말, 축사, 회장 인사말 및 활동계획, 임명장 수여, 소원지 달기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범어사 청년회는 지난 6여 년 동안 활동이 단절돼 중추적인 역할이 없는 상황이었다. 범어사는 포교 및 청년 세대에 불교 전수를 목표로 청년회를 새롭게 창단, 발족했다.

범어사 청년회는 발대선언을 통해 수행과 정진을 통한 내면의 성장을 다짐했다. 이어 호국의 정신을 담은 문화 행사나 예술 활동을 통해 호국불교 사상을 전하고 호국 정신을 되새기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사회 활동을 통한 자비 정신을 실천한다. 범어사 청년회 금어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 무료 급식,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청년회의 작은 행동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불교 화엄사상의 가르침을 실천해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이라 서원했다.

범어사 청년회 금어는 현재 20세에서 45세의 청년회원으로 구성됐으며 총 46명의 청년 불자들이 가입했다.

서영란 청년회 회장은 "범어사 청년회 금어는 수행을 통해 내면의 성장을 이루고 보시와 나눔의 실천을 통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의 마음을 닦는데 그치지 않고 대중과 함께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전파하는데 있다"고 다짐을 전했다.

범어사 총무국장 대방 스님은 "여러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지혜와 자비를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불교 청년은 불교에 있어서 현재이자 미래이다. 오늘 이 발대식을 시작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청년회 금어의 여정이 늘 화합과 자비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이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전하리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은 "많은 분들의 노고와 원력으로 대한불교 청년회의 시작점인 범어사 청년회가 재창립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전국에 새로운 청년회가 발족하는 시작점의 중심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축하했다.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동안거 대중공양

1월 16일 100인 분 공양


참석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이 1월 16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갑진년 동안거 대중공양'을 실시했다.〈사진〉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은 매년 안거를 맞아 법화경 독송 수행으로 재가 안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동안거를 맞아 부산지역단 34개팀은 법화경을 2회씩 독송 수행하고, 수행기간 동안 십시일반 후원했다. 동안거를 맞아 올린 대중공양은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소속 회원들의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마련됐다.

대중공양에는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 단장, 강태산 사무국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및 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포교사단은 이른 아침부터 대중간을 방문해 직접 공양 음식을 만들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다. 공양은 다채로운 채식 메뉴 100인분이다.

송재린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장은 "안거마다 포교사단 단원들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수행을 회향하며 올리는 공양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포교사가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포교사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주지 총회

1월 21일 천안 태학사서


금당 스님, 재무국장 해공 스님, 규정국장 도의 스님, 사회국장 법인 스님, 문화국장 중관 스님을 비롯한 교구 회원스님들이 동참했다.

태고종 세종충남교구종무원이 교구 주지총회와 종회를 열고 2025년 교구 발전을 다짐했다.

태고종 세종충남교구종무원(종무원장 원철 스님, 관음사)는 1월 21일 천안 태학사(주지 법연 스님) 대웅전에서 '태고종 세종충남교구 주지총회 및 종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날 종회는 △삼귀의·반야심경 봉독 △종무원장 인사말 △종회의장 인사말 △중앙원로의원 인사말 △발전기금 전달 △표창장 시상에 이어 2025년 세종충남교구 규약 규정 공포 및 을사년 행사 및 기타 안건을 논의했다.

세종충남교구 종무원장 원철 스님, 지방종회의장 청공 스님, 중앙원로의원 동우 스님, 지방원로의원 경허 스님, 종무부원장 송봉 스님, 지방종회 부의장 혜륜 스님, 지방선관위원장

원철 스님은 "기도 정진과 보살행으로 불자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부처님 품 안에서 교구를 이끌어 가자"며 "을사년에는 교구 내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종도의 법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무자문팀 활성화, 연수교육 및 수육재 등을 검토하고 추진해 교구 발전에 진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동우 스님은 300만원을 교구 발전 후원기금으로 쾌척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부산불교, 설날 맞아 자비나눔 '풍성'

지역불교연합회 · 사찰 설 명절 나눔 이어

명절 맞아 소외 이웃 위해
전기매트 등 후원물품 전달



설날 명절을 맞아 소외 이웃을 위한 나눔이 전개됐다. 사진은 동래구불교연합회가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

설날 명절을 맞아 소외 이웃 및 독거 어르신을 위한 후원 나눔이 줄을 이었다. 부산 불교 구·군연합회 및 사찰은 명절에 외로움을 느낄 소외 이웃을 위한 후원으로 자비 나눔을 실천했다.

동래구불교연합회(회장 자관 스님)는 1월 22일 동래구청 정책회의실에서 '설맞이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동래구불교연합회는 전기매트와 백미(600만원 상당)를 전달하며, 지역 내 소외 이웃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기원했다. 전기매트는 저소득 계층 43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며, 백미는 동래구노인복지관에 후원한다.

전달식에는 회장 자관 스님, 부회장 정현 스님, 법관 스님, 총무국장 지운 스님, 재무국장 성화 스님 등 동래구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장준용 동래구청장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회장 자관 스님은 "어려운 환경으로 설날이 더욱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많다"며 "저희 연합회의 성금이 그분들에 온기가 되고 새해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혜원 스님)가 설날을 맞아 떡국떡을 전달하고 행복한 명절을 기원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는 1월 21일 사하구보훈회관에서 '설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사하구불교연합회는 230여 어르신에게 떡국떡 130g, 총 300kg을 전달했다. 이어 급식소를 찾은 어르신에게 공양을 대접하며 만수무강을 기원했다.

회장 혜원 스님은 "매주 화요일마다 건강을 기원하며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며 "아무쪼록 행복한 시간을 가족들과 보내시고 새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남구불교연합회(회장 지원 스님)는 1월 17일 남구청에서 '부산남구불교연합회 설맞이 성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남구불교연합회는 자비의 쌀 3710kg과 라면 100박스를 전달하며 설날을 맞아 소외 이웃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했다.

전달식에는 남구불교연합회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능후 스님, 사무총장 호명 스님, 감사 대각 스님, 사무부총장 혜광 스님 등이 동참했다.

남구불교연합회 회장 지원 스님은 "추운 겨울에 명절을 맞는 소외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며 "다만 적은 양인거 같아 송구한 마음이다. 작게나마 힘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원장 정경국원)은 1월 17일 부산 연제구청장실에서 '설맞이 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상임원장 정경국원을 비롯해 부산정사 영준국원, 주석수 연제구청장 등 관계자가 동참했다.

신뇨엔은 이날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으며 독거노인 50명에게 각 10만원씩 전달할 것을 요청했다.

정경 국원은 "을사년 신뇨엔 정진목표인 '자애의 이타행'을 실천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민노인복지관, 2025년 신년하례

1월 22일, 관내 대강당서


를 시청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사회복지법인 불국토 부민노인복지관(관장 정수홍)이 1월 22일 복지관 내 대강당에서 2025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신년하례는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신년하례에는 상임이사 하림 스님(미타선원), 공한수 서구청장 등 주요 내빈을 비롯해 지역주민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여한 주민들은 새해 덕담을 직접 쓰고 게시하는 퍼포먼스와 지역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각 세대가 어른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영상편지

또한 부민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지역주민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노인복지사업의 방향을 공유하고, 2025년 복지관 운영계획을 공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상임이사 하림 스님은 "올 한 해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항상 건강하고 부민노인복지관에서 행복하실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덕담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절 한번에 '나' 내려놓고 '부처님' 만나다"

봉녕사 3기여성출가학교 1보1배
1월 20일 금탑서 대적광전까지
2시간 동안 일보일배 3회 정진


발원문' '반야심경' '사홍서원'을 독송하고 일보일배를 회향했다.

수원 봉녕사 제3기 여성출가학교(학교장 진상 스님, 봉녕사 주지)는 1월 20일 경내 금탑부터 대적광전까지 일보일배 정진을 진행했다.〈사진〉

이날 일보일배 정진에는 여성출가학교 도감 도연 스님과 봉녕사 사중스님들, 입교생 11명과 봉녕사 신도들이 동참했다.

삼귀의를 봉독한 입교생들은 금탑을 3바퀴 돌며 일보일배를 진행했다. 입으로는 "나무석가모니불"을 외고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며 대적광전으로 나아갔다. 대적광전에 다다른 입교생들은 '칠정례' '이산혜연선사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적연 스님은 법문에서 "절은 모든 걸 내려놓고 자신의 본래 자성불(自性佛)을 만나는 과정"이라며 "우리가 걸음 걸음마다 석가모니불을 부르짖는 것은 이 사바에서 부처님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다. 나의 참성품을 찾기 위한 절규의 목소리인 것이다"고 설했다.

한편, 제3기 여성출가학교는 1월 25일 회향식을 봉행한다.

김민재 기자

범어사 성보博, '박물관문화재단상' 수상

전국 160곳 중 3곳 선정…사찰박물관 유일 수상



3곳만 우수관으로 선정돼 그 의미가 크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이 2024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프로그램 공모에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상을 수상했다.〈사진〉

문화체육관광부와 ICOM 한국위원회가 주최하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4년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은 지난해 1월 초부터 대표 프로그램 공모가 진행됐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은 전국 160개 관이 응모한 1차 서류심사(55개관 선정)와 2차 심사를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특히 최종 선정 기관 가운데 11월 26일 우수관으로 선정,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우수관 시상은 올해 처음으로 전국의 박물관 및 미술관 중

한편, 지난 1월 13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2025년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에서 범어사 성보박물관 소속 유길상 실장이 '박물관·미술관 업무추진 유공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진불어린이합창단聯 '제6회 연합합창제'

2월 16일 부산영화의 전당서

천진불어린이합창단연합회(회장 영산 스님)가 2월 16일 오후 3시 부산 영화의전당에서 '제6회 천진불어린이연합합창제'를 개최한다.

공연 주제는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이며, 보리수어린이합창단(제주 불교 보리왓), 종소리소년소녀합창단(종문사),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 선혜단이슬합창단, 부산 혜원정사 혜원소년소녀합창단, 울산 정토사 가람청소년합창단, 울산 황룡사 나모라어린이청소년합창단, 제주 약천사 리틀붓다어린이합창단 등 전국 사찰 소속 어린이합창단 10곳이 참여한다.

공연은 창작 찬불동요와 연주, 뮤지컬 등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지며, 마지막에는 참여 합창단이 동시에 무대에 올라 연합곡을 선사할 예정이다.

회장 영산 스님은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에 푸른 날개짓 같은 마음의 소리가 들려온다"며 "저마다 동심을 노래하고, 부처님의 자비를 노래로 전할 이번 합창제에 축하와 격려를 보내주신다면 한량없는 기쁨이 될 것이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